

2015. 3차 순경채용시험 (9/19)

출제경향과 난이도

1) **출제비중** : 근현대사 문제는 4문제로 적게 출제된 편이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문제들이 함정문제와 순서문제, 낱설은 사료문제가 나와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 문화사는 3문제가 출제되어 기존보다 적게 출제된 편이었다.

2) **난이도** : 하하-상상의 9단계로 보면 상하정도였다. 즉 어려운 편이었다.
기존의 경찰한국사 시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편이었다.

① 함정문제가 많았다. 단어만 살짝 바꾸는 문제, 바뀌치기 문제 등

(특히 박스 문제에 함정문제가 섞여 있어 신중함이 어떤 때보다 필요했다.)

② 사료제시형 문제는 대표적 사료가 나오기는 했으나 흔히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수험생들을 당황케 한 문제가 많았다.

예) 9번 삼국사기 사료 19번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20번 통일정책과 관련된 사료들

※ 아주 어렵고 생소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데 생소한 사료와 함정문제가 많았기에 어려운 편이었다. 85점이상자면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앞으로의 공부방향** : 무엇보다 기본 내용에 충실하고, 기존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함께 길러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유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푸는 요령은 해설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1.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가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 ② 농기구는 주로 석기로 만들어졌는데,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홈자귀 등이 사용되었다.
- ③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 ④ 당시 사람들은 사냥 및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위그림을 그렸다.

답: ③

<난이도 : 중>

해설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토기 붉은 간토기가 사용된 시대는 청동기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으며 농기구는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홈자귀등을 사용하였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위그림을 그렸다.

청동기 철기시대 대표적 바위그림 (암각화)

울주 반구대	200여점이 넘는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살이 꽂힌 고래, 그물에 걸린 동물, 우리 안의 동물 등 여러 가지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요를 비는 염원의 표현으로 보인다.
고령 양전동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무늬가 많다. *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고 있다.

③ 신석기 시대

● 엄밀하게 말하면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청동기시대에도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기에 ③번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③을 고르는 것이 적당하다.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다.’라고 냈으면 애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옥저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생활이 윤택하였고, 매년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 고구려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 ㉢ 삼한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진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 부여는 10월에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 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 ㉤ 동예는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①

<난이도 : 하 >

해설

㉤만 맞다.

- ㉠ (×)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 ㉡ (×)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장은 부여에 있었다.
- ㉢ (×) 철은 변한에서 많이 생산된다.
- ㉣ (×)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이다.

3. 근초고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②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③ 마한 세력을 정복하고 북으로는 홍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였다.
- ④ 중국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였다.

답:④

<난이도 : 중 >

해설

① 침류왕 ② 고이왕 ③ 마한을 정복한 것은 근초고왕이 맞으나 거란족 일파인 지두우족을 분할점령하여 홍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한 것은 장수왕이다.(홍안령 일대 초원지대는 장수왕 때의 일로 기존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 있다.) ④ 근초고왕 (요서 산둥 규슈 진출)

4. 다음 자료를 저술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열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중(大宗)이 되고, 합하면 이문(二門) 일심(一心)의 법이 그 요체가 되어 있다. 그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용된다. 이런 까닭에 전개, 통합이 자재하고, 수립, 타파가 걸림이 없다. 펼친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수립하되 얻음이 없고 타파하되 잃음이 없다.

- 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 ② 송광사를 중심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 ③ 백성들의 신앙 욕구를 고려하여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 ④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답:④

<난이도 : 중하 >

해설 제시문에서는 ‘일심(一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일심을 강조한 승려는 원효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십문화쟁론]등의 책을 저술하였다.

① 의상 ② 지눌 ③ 요세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 ②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다.
- ③ 목축이 발달하였고, 농업은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 ④ 중앙 정치 조직은 3성 6부를 근간으로 중대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답:④

<난이도 : 하 >

해설 발해의 중앙정치조직은 3성6부를 근간으로 한 것은 맞지만 정당성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발해 중앙정치기구]

당과 유사점	외형상으로는 당의 3성6부제도를 수용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당과 차이점	① 정당성 중심의 체계 :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수상의 자격을 띠고 있었다. ②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을 두어 이원적으로 6부를 운영한 점은 당과 차이가 있다.

6. 고려 시대 광종의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으며,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 ② 국가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 ③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답:③

<난이도 : 하 >

해설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고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① 성종 (과거제도를 시행한 것은 광종) ② 성종 ④ 태조 왕건

7. 다음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만약 집안의 세력이 미비하면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 평양 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것이다.

- ① 고려 후기에 정계 요직을 장악한 최고 권력층이었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 ③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 ④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할 만큼 대농장을 소유하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답:②

<난이도 : 하 >

해설 제시문은 [충선왕]의 즉위교서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권문세족인 재상지종에 대한 글이다.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 정계요직을 장악하였고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였고 대농장을 소유하였다.

② 신진사대부

㉠ 만약 권문세족과 문벌귀족을 비교하는 문제였다면 어려웠을 테지만, 신진사대부와 비교하는 문제라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다.

8. 고려 시대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으며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 ②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 ③ 전국의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④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답:③

<난이도 : 하 >

해설 ③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속군, 속현이 더 많았다.

9. 다음은 한 역사서 서문의 일부분이다. 이 역사서와 가장 유사한 서술 방식으로 기술된 역사서는?

그에 관한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후(君后)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

- ① 『동국통감』 ② 『고려사』 ③ 『고려사절요』 ④ 『조선왕조실록』

답:②

<난이도 : 상 >

해설 제시문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서문이다.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서술되었으며, 고려사가 기전체이다.

①③④ 편년체

㉠ 일상적인 삼국사기 사료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던 문제다. 그러나 절요, 실록, 통감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역사서가 편년체임을 알고 있다면 고려사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기술방법	기원	대표작
기전체	본기, 열전, 지, 연표로 구분하여 기록	사마천 [사기]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허목, 이종휘), 해동역사
편년체	시간 흐름순으로 사실을 기록	사마광 [자치통감]	대부분 역사서 (절요, 통감, 실록)

10. 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정 전시과의 과등(科等,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는 개정 전시과 보다 많았다.
- ㉡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하급 관료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다.
-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내장전이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 ㉣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 ㉤ 전시과 제도와 관련하여 목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②

<난이도 : 중상 >

해설

- ㉠ (×) 경정전시과의 지급액수는 개정전시과보다 적었다.(갈수록 지급액은 적어진다.)
 ㉡ (×) 하급 관료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토지는 구분전이다.
 ㉢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이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내장전×)
 ㉣ (○)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 (×) 전시과 제도에서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한 것은 문종때의 경정전시과이다.

[전시과의 변천]

역분전(태조)	전시과		
	시정전시과(경종)	개정전시과(목종)	경정전시과(문종) = 공음전시과
공로의 대가 (경기지방)	전직 + 현직관료 (직산관) 관직과 인품 반영	전직 + 현직관료 관직만을 고려 * 문관 우대(군인전 지급)	현직관료 관직만을 고려 * 무관차별 시정 공음전 법제화 한외과 폐지

11. 조선 시대 봉당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봉당의 출현 당시 척신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두고 기성사림과 신진사림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으며,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었다.
 ② 이항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한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북인과 급진파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③ 노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④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답:④

<난이도 : 중 >

해설

현종때 기해예송, 갑인예송이 발생하여 서인과 남인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 ① 동인은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은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② 급진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③ 노론을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 적극적인 북방개척을 강조한 쪽은 소론이었다.)

12. 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처음 삼남 지방은 정해진 결수로 조세 대장에 기록하되 ...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下之下)로 정하여 징수하였다. 이후 경기·삼남·해서·관동 모두 1결에 4두를 징수하였다.
 ㉡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上上年)으로 정해 1결당 20두, ... 2분이면 하하년(下下年)으로 4두씩 거두며 1분이면 면세하였다.
 ㉢ 농부의 둘째 손가락으로 열 번을 재어 상전척(上田尺)으로 삼고, ... 1결에서 조(租)는 모두 30두씩 거두는 것을 정수로 하였다.

- ① ㉠ 제도 하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나누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② ㉠ 제도 하에서는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③ ㉡ 제도에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④ ㉢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켜 충당하였다.

답:②

<난이도 : 중 >

해설 ㉠ 영정법(인조) ㉡ 공법(세종) ㉢ 답험손실법

- ① (×)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 자영농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다면 농민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인 전호로 전락해버린 조선 후기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세의 비용(운송비, 수수료)이 본래 전세액의 몇배에 이르러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③ (×) 답험손실법의 내용이다. 공법에서는 1결당 4두(상상년)에서 ~ 20두(하하년)로 납부액을 정하였다.
④ (×)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다.

*답험손실법 : 1391년 과전법 실시 이후 세종때 공법(貢法)이 공표될 때까지 시행된 것. 이 당시는 수확량의 1/10을 내는데, 1결의 최대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실무 담당관리의 농간, 전주의 횡포 등 폐단이 많아, 세종 때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이를 대신하였다.

13. 조선 시대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소과에는 시·부 등의 문학을 시험하는 생원시와 경서를 시험하는 진사시가 있었다.
㉡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2년마다 치러지는데,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 같은 관서 또는 서로 연관이 있는 관직에 친인척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방관을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 서경제도가 있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①

<난이도 : 상 >

해설 ㉠(×) 문학능력을 보는 제술에 해당하는 시험은 진사시이고, 경서에 대한 이해 암기능력을 보는 명경에 해당하는 시험은 생원시이다. (디테일한 문제)

㉡(×) 보통 시험은 3년에 한번씩 보는 것이 원칙이었다.

㉢(○)

㉣(×) 서경은 5품이하 관리 임명에는 대간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고, 서로 연관이 있는 관직에 친인척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방관을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피제도이다.

14. 다음 서적이 편찬된 시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전통편』 · 『동문회고』 · 『탁지지』 · 『무예도보통지』

- 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②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③ 비변사를 폐지하였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왕권을 강화하였다.
④ 신진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답:③

<난이도 : 하 >

해설 제시된 책들은 모두 정조때 편찬된 것이다. 정조는 친위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고, 적극적인 탕평인 준론 탕평을 실시하였으며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도를 시행하였다.

③ 비변사를 폐지한 것은 고종때 흥선대원군이다.

15.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과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기능이 강화

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 ② 지방군 방어 체제는 16세기 후반 진관 체제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세승방략 체제로 복구되고 속오법에 따라 군대가 편제되었다.
- ③ 훈련도감, 어영청, 충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 ④ 3사의 언론 기능이 변질되었으며 3사는 각 봉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답:②

<난이도 : 하 >

해설

② 지방군 방어체제는 16세기 후반 세승방략체제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진관체제로 복구되었고 속오법에 따라 군대가 편제되었다.

<조선의 방위체제>

구 분	시 기
영진체제	태조 초 ~ 세조 초(1455)
진관체제기	세조 초(1455) ~ 을묘왜변 전후(1555)
세승방략기	을묘왜변 전후 ~ 임진왜란 초(1592)
진관체제 복구기	임진왜란 초 ~ 정유재란(1627), 이후 진관체제

16. 다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 ㉠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격침 ㉡ 원산학사 설립
㉢ 갑신정변 ㉣ 임오군란 ㉤ 신미양요

- ① ㉠→㉢→㉡→㉣→㉤ ② ㉠→㉢→㉣→㉡→㉤
③ ㉡→㉠→㉣→㉢→㉤ ④ ㉢→㉠→㉡→㉣→㉤

답:②

<난이도 : 중 >

해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격침1866㉢ 신미양요(1871) ㉣임오군란(1882) ㉡1883(원산학사/동문학,박문국,진환국,기기창) ㉤갑신정변(1884)

*원산학사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었을테지만, 원산학사는 기본암기사항이다.

17. 다음 <보기>와 같은 시기의 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항인(里巷人)들은 일컬을 만한 경학이나 내세울 만한 공훈도 없다.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기록할 만한 시나 문장을 남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아! 슬프다. 내가 여러 문집에 있는 사람은 찾아내고,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직접 써서 이 책을 간행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①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표현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 ②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는 건축 양식이 주로 유행하였다.
- ③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 『의방유취』를 간행하였다.
- ④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답:④

<난이도 : 중 >

해설

제시문은 영조때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의 서문이다.(이항인은 골목에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중인을 가른다.) 이 사료를 몰라도 '이항인' '시사'를 통하여 조선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광대나 기생이 산조

와 잡가(조선후기 평민들이 지어부르던 노래의 총칭) 등을 창작 발전시켰다.

① 분청사기 (고려후기~조선 초) ② 고려의 주심포양식(조선은 다포식 양식이 유행한다.) ③ 조선초 (세종)

*시사(詩社) : 조선 후기 중인들이 주동이 되어(서민층 포함) 조직한 시 동호회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 농민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② 국가가 지주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영세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 ③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통감부가 모두 강제로 빼앗았다.
- ④ 이 사업은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답:④

<난이도 : 중상 >

해설 제시문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말한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일제는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 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을 뿐 아니라 농민이 관습상 가지고 있던 경작권과 입회권 등 각종 권리 부정되어서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이 급증하게 되었다. ②(×)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
- ③(×) 일제강점기이므로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이다. (합정문제!)

19. 다음 ㉠과 ㉡의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은(는)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자주 독립적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고 하였다.

- ① ㉠은(는) 1945년에 독립 축성 중앙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 ② ㉡은(는) 8·15 광복과 동시에 조선 건국 동맹을 확대 개편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③ ㉡은(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 ④ ㉠, ㉡ 모두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였다.

답:②

<난이도 : 하 >

해설 ㉠이승만의 정읍발언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승만은 독립축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켰고, 김구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김구 이승만 모두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였다.

② 조선건국동맹을 개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여운형이다.

●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사료의 생소한 부분이 나와 ㉡을 여운형으로 착각하여 틀린 사람들이 있다.

20. 다음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주요 문서들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 개성 공업 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답:③

<난이도 : 상 >

해설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인정,상호불가침 조항) ㉡ 2000년 6.15공동선언(4항의 내용) ㉢ 1991년 7.4남북공동성명(통일의 3원칙에 대한 글) ㉤ 2007 10.4공동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백두산 관광,서해평화지대 창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은 개성공단이 나와 6.15선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6.15선언이후 추진된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말을 보면 2007년 10.4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험생들에겐 ㉡이 가장 추정하기 어려운 사료였을 텐데 통일문제는 72년 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이 주로 나오고 간혹 10.4공동선언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6.15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기존에는 '자주적으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라는 문장이 주로 나왔기에 사료의 다른 생소한 부분이 나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